복지계, 장애 극복한 전문 선수 육성 '열풍'

불교 복지재단 산하 시설서 운동부 창설 '인기'

불교계 복지재단 산하 시설서 장애를 극복한 운동부 활동이 열풍이다. 시설들은 기존 장애인들의 취미 또는 건강관리를 목표로 한 체육 프로그램서 진일보, 전국 대회 출전을 비롯한 선수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전문 체육인 육성에 나서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산하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선재)은 배드민턴 선수반을 운영 중이다. 지적 · 자폐 · 뇌병변 장애 청소년 7명 및 지체장애 청소년 1명으로 구성된 선수반은 2013년 창설 직후 열린 8월 한국스페셜올림픽 하계대회서 금 4개, 은 1개, 동 3개를 획득하고, 2015년 8월 LA스페셜올림픽 세계하계대회서 금 2개(혼합복식 · 여자복식), 은 2개(남녀단식)를 획득할 만큼 실력이 정평 났다.

이에 성북장애인복지관은 관내 생활체육프로그램 일환으로 운영해 온 '배드민턴 엘리트반'을 올 3월 '배드민턴 선수반'으로 승격했다. 이후 매달 우수선수 3명을 선정해 재능장학금을 지원하고, 외부메달 획득 시 포상금을 수여하는 등 원조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선수반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니폼 · 셔틀콕 · 라켓 등 뿐 아니라 공식 훈련 3시간 외 자율운동을 위한 체육관 입장료도 지원한다.

전폭적인 지지 속 선수단은 동아시아지역 스페셜 올림픽 여자단식 부문 금메달을 비롯해 올해만 10여개에 달하는 메달을 획득했다.

성북장애인복지관 측은 "장애인 선수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등 현실적 고민에 부딪히며, 지속적인 훈련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선수반에게 안정적인 운동 환경을 제공하고, 더욱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전문 체육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성북장애인복지관은 수영반도 운영 중이다. 2007년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관내 '수영교실'로 시작했으나 2014년부터 국내 대회에 출전, 특히 2015년 서울시 발달장애인 수영대회서 금 · 은 · 동메달을 차지하는 등 입상의 쾌거를 이루고 있다.

성북장애인복지관 측은 "동기부여를 위해 매년 수영대회에 참여한다"며 "입상 후 장애인 선수들의 자신감 향상과 함께 보호자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취미 · 건강관리 수준서 벗어나
복지관 지원 체계도 확립
국내외서 우수한 성적 거둬
실업팀 창단, 종목 확장 등 계획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포항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권순관)은 '어울림탁구클럽'을 운영 중이다.

어울림탁구클럽은 올 4월 창단된 신생 운동클럽이다. 이 역시 2015년 9월 '탁구교실'로 시작돼 현재 24명 장애인 회원이 활동하는 '탁구 선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동포항로타리 백합회'가 탁구대 및 탁구용품을 지원하고, '미라클탁구장' 관장 및 회원들이 훈련 봉사에 함께하는 등 지역사회 협조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 6월엔 경북장애인복지관협회장기 장애인탁구대회에 첫 출전한 바 있다.

최병곤 어울림탁구클럽 회장은 "10년 전 쯤 뇌졸중에 걸려 고생하던 중 지난해부터 복지관 탁구교실에 참여했다. 그전엔 뇌 기능 저하로 인해 건강이 많이 악화됐었는데 운동을 통해 평상시 기분 전환에도 매우 좋고, 재활에 매우 큰 도움이 됐다"며 "또 지역사회 여러 기관에서 후원해주니 동기부여도 많이 된다"고 흡족해했다.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선재)은 2016 동아시아지역 스페셜올림픽 배드민턴부문서 금메달을 차지한 문지연 선수에게 재능장학금을 지급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용철)은 관내서 실시 중인 전문 스포츠 사업 내에 '사람사랑 스포츠 지원단'을 별도로 구성하고, △군포빅스농구선수단 △스마일배드민턴선수단 △군포청춘탁구선수단 등 총 4개의 스포츠단을 운영하고 있다.

2012년 3월에 일제히 창단된 농구단과 탁구단, 배드민턴단은 각각 10명, 4명, 5명의 선수를 보유해 선수층이 두텁진 않지만 소수정예의 성과를 거둬 왔다. 탁구단과 배드민턴선수단은 지역 대회를 중심으로 출전을 지속하며 실력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농구단은 2014년 제7회 고양시장컵 전국지적장애인농구대회서 준우승을 거둔 바 있다.

군포시장애인복지관 측은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통해 재활, 건강증진, 여가선용 뿐 아니라 개인의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종목별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해 전문 스포츠 선수를 배출할 것이다. 현재 구기종목 뿐 아니라 보치아(boccia) 및 슐런(Sjoelen) 등 종목 선수 육성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운동부 열풍은 장애인들의 사회성 발달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게 시설 관계자들의 평가다. 성북장애인복지관장 선재 스님은 "스포츠는 성인 장애인들에겐 스트레스 해소법이 되기도 하고, 일상에 더 큰 만족감을 가져다준다. 또 발달 장애인들에겐 그 자체로 미래의 '꿈'이 되기도 한다"며 "사람들과 자주 모여 훈련하고,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며 사회성도 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재 스님은 지원 체계 확립과 미래지향적 운영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선재 스님은 "장애인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일할 수 있는 곳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선수들의 생계도 고려해야할 부분"이라며 "성북장애인복지관은 대부분 고등학생인 배드민턴 선수들의 졸업 시기에 맞춰 실업팀 창단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우란분절 백중기도 전국서 일제 봉행

6월 30일 입재 후 백중일 8월 17일 회향 앞둬
7일 기도, 영가천도재, 철야기도 등 '다채'

우란분절(백중)은 부처님 십대제자 중 목련존자가 지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 석가모니 부처님께 청원한 것에서 비롯된다. 불자들은 하안거를 끝내고 자자(自恣)를 하는 날인 음력 7월 15일 백중기도를 올리며, 부모의 무병장수와 조상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있다.

이에 전국 사찰들은 6월 30일부터 일제히 백중기도 입재에 들어갔다. 49일간 진행되는 백중 기도는 우란분절인 8월 17일(음력 7월 15일) 회향을 앞두고 있다.

대구 동화사는 6월 23일~8월 17일 입재 · 6재 · 회향에 걸쳐 백중기도를 올린다.

특히 6재가 진행되는 8월 10일 통일기원대전(대불전)서 유명계(영가) 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유명계(영가) 수계법회란 영가 제위들에게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재가자로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해 오계를 수지하는 자리다. 수계법사는 팔공총림 율원장 능조 혜수 스님이다.

또한 17일 오전 9시 30분 통일기원대전서 회향법회를 열고, 반야용선 진수식 및 전통 방식을 그대로 재현한 다비식을 진행한다. 조계종정 진제 스님의 하안거 해제법회가 예정돼 있다. (053)980-7900

의성 고운사는 8월 17일 오전 10시 영가천도 대법회를 봉행한다. 동참금은 영가 1위패 당 1만원, 가족 축원 3만원, 백중영가등 5만원이다. 당일 차량 운행도 실시한다. 차량 스케줄은 고운사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054)833-2324

순천 송광사는 8월 10일 오전 10시 입재를 시작으로 17일까지 경내 지장전서 철야정진기도를 봉행한다. 동참금 10만원. (061)755-5306

선본사 갓바위는 6월 30일~8월 17일 우란분절 영산대재를 봉행한다. 백중 49재는 매주 수요일 11시 유리광전서 진행되며, 특히 8월 7일 오전 9시 갓바위 약사여래전서 영산대재 천도법회를 봉행한다. (053)851-1868

순천 선암사는 8월 11~17일 매일 오전 10시 백중 7일기도를 실시한다. 동참금은 가족축원 5만원, 영가 1위당 1만원이다. (061)754-5247

공주 갑사는 백중기도 49일 동안 금강경 독송을 진행한다. 동참금은 생축기도비 5만원, 위패비 영가 1위당 1만원이다. 입재와 백중 당일엔 버스 운행도 제공한다. (041)857-8981

이밖에도 평창 월정사, 공주 마곡사, 예산 수덕사, 합천 해인사, 부산 범어사, 경남 통도사, 전남 백양사, 고창 선운사, 양양 낙산사, 전북 내장사, 강화 보문사 등서 우란분절(백중)인 8월 17일까지 백중기도 법회를 진행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불교상담개발원, 자살예방 템플스테이

8월 20~21일, 가평 백련사서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직무대행 무각)은 서울시자살예방센터와 공동으로 8월 20~21일 가평 백련사서 자살시도자,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을 생각해본 사람 등 자살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템플스테이 주제는 '마음 돌아보기, 어루만지기'다. 2016년 서울시 '살(자)사(랑하자) 프로젝트' 일환으로 자살예방을 위해 4대 교단과 연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자살고위험군인 사람들이 휴식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템플스테이는 첫날 오후 3시 30분 오리엔테이션(자기소개)으로 시작된다. 1시간 반가량 대중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다. 저녁공양 이후에는 함께 저녁예불을 올리며 사찰에서의 마음가짐을 다진다. 또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그동안 사회 속에서 지쳐버린 심신을 달랜 뒤 김준형 열린사이버대 교수의 영화치료를 체험한다.

이튿날에는 잣숲길 산행을 하며 자연이 주는 선물을 만끽하고, 전문가와의 집단상담을 통해 쉽사리 꺼내지 못했던 속내를 털어놓는 기회를 갖는다. 오후에는 소감문 작성 및 소감 나누기로 템플스테이를 마무리한다.

템플스테이에는 자살예방을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26명 모집하며, 8월 10일까지 불교상담개발원 홈페이지(http://kbcd.org)에서 신청서를 받아 이메일(jabi7378@naver.com)로 하면 된다.

불교상담개발원 측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편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서울시민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증진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손오공! 편식은 안 돼!"

선재사찰음식연구원, 식습관 개선 뮤지컬 공연

사찰음식의 정신을 담은 최초의 뮤지컬이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를 찾았다.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원장 선재)은 7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위한 뮤지컬 '그거 알아요? 음식은 생명!'을 공연했다. 공연은 프로젝트 극단 '나무의 꿈'이 맡았다.

뮤지컬은 서유기에 등장하는 삼장법사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여행을 하면서 음식의 소중함을 깨닫고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 뮤지컬은 지난 2014년 수원 봉녕사 '세계사찰음식 대향연' 초연 이래 서울시 초등학교 25곳, 서대문구 등 지자체,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30여회의 공연을 선보인 바 있다.

공연에 앞서 무대에 선 선재 스님은 "개인적으로 음식을 통해 아픔을 치유해 새 삶을 살게 되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많이 고민했다. 영화도 만들고 학교도 짓고 싶었다"면서 "이 뮤지컬은 음식을 포교와 수행방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모든 생명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부처님 말씀처럼 더 많은 이들에게 행복으로 이어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거리공연으로 유명한 불자가수 박희진 씨와 어린이 중창단 '소리달'이 축하공연을 펼쳤다.

윤호섭 기자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 과정(50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6년 9월 5일 (월요일) 오후 3시 (복타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출 강 반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 신 반 : 지방 거주자를 위해 통신교육을 실시함(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총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계사, 병접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계탑윤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 02)733-1959
720-1836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4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8월 31일까지
◆ 개강일시 : 2016년 9월 5일 (월요일) 개강
매주 (수,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